

“폐암 검진 ‘농어촌·도서지역’ 소외 해소해야”

검진센터 방문 위해 간접 비용 지출
이개호, NCC 국감 형평성 대책 촉구
암센터 “암 검진 통합 이동지원 검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22일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NCC가 주관하는 국가 폐암검진 제도의 농어촌·도서지역 형평성 및 효율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국립암센터는 2000년 3월 2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에서 개원해 연구·진료와 국가암관리사업을 수행해 왔다. 국가 폐암 검진 시범사업(K-LUCAS)은 2016년 5월 기획·개발 연구를 시작으로 2017년 2월 보건복지부 지정에

따라 본격 시행됐다.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19년 국가 폐암 검진이 본사업으로 전환됐으며 수검률은 2019년 30.2%에서 2024년 54.6%로 꾸준히 상승했다.

조기암(I·II기) 발견 비율 또한 증가하며 제도가 정착 단계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지역 간 접근성과 품질의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은 “농어촌·도서지역 주민은 국립암센터를 직접 이용하기 어렵고 국가 지정 검진기관까지 이동하는 데 왕복 2-3시간 이상이 걸리는 등 물리적 제약이 크다”며 “이 과정에서

교통비·식비 등 간접비용까지 약 3만~5만원에 달하는 등 지역 간 의료 형평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립암센터는 장비·인력·QA(품질보증) 인프라 측면에서 판독 정확도와 추적 검사 이행률이 높지만 일부 농어촌 지정검진기관은 연간 필수 QA 점점을 이행하지 않거나 표준 판독·보고 체계(Lung-RADS)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제도적 차별이 아니라 인력·교육·인프라 불균형에서 비롯된 품질 격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폐암 검진은 ‘빨리 찾는 만큼

생명을 지키는’ 국가 제도다.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진단이 늦어지거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국립암센터가 농어촌·도서지역을 위한 순회 검진 시스템과 권역별 QA 관리 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해당 문제 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방에선 종합병원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모바일 CT 기반 검진이나 암 검진 통합 이동 지원 프로그램 등을 국립암센터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진수 기자



국감 출석한 오세훈과 명대균

정치 브로커 명대균씨가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장에서 열린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전남도의회 5분발언

차영수 “강진에 ‘전남형 물류기지’ 구축해야”

통합형 집하·환적허브 제안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은 23일 제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진군을 ‘전남형 물류기지’로 육성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전남의 물류 축이 서남부 목포권과 동남부 순천·여수·광양권에 치우치고 내륙 교통망이 광주 중심 방사형으로 짜여 있어 도 전역 물동을 자체 집하·환적으로 묶기 어렵다는 게 차 의원의 지적이다.

차 의원은 “강진은 목포-보성선 개통으로 강진역이 신설되며 남해안 철도축이 연결됐고, 광주-완도 고속도로(광주-강진 구간)가 단계적으로 진



척돼 내륙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고 있다”며 강진의 물류기지로써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전남은 대표적인 농수산물 생산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선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 처리로 유통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농수산물 물류기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차 의원은 “강진은 남해안 축의 중앙에 위치해 전남 서부와 동부의 물동량과 해상 물동량을 환적 거점으로 묶어 처리할 수 있다”며 “전남의 농수산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물류기지로 강진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가정법원, 조사관 부족 재판 지연 악순환

한 명이 3개 역할…인력 3배 확충 시급
박균택 “인력 부족, 가정·개인 고통 안돼”

이혼, 양육, 후견 등 한 개인과 가족의 인생이 걸린 가정법원 사건 처리 속도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때문에 해마다 늦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이 23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국 가사조사관은 229명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 명의 조사관이 가사사건, 소년보호 사건, 비송사건 등 3개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정법원 사건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일부 법원에서는 가사조사 기간만 수개월 이상 걸리며 이혼이나 양육 문제로 절박한 당사자들은 기약 없는 시간 동안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전국 법원 57곳 중 장흥을 비롯해 속초·제천·의성·영덕·남원 등 6개 지원에는 가사조사관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아 인근 지원의 조사관이 순회하며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파견을 보내는 지원조차 1-2명 수준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사관은 물론 사건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가사조사관은 가정법원 내에서 이혼, 친권, 양육, 후견 등 가사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재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지

만 인력 부족으로 조사 기간이 장기화되고 당사자 면담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재판의 충실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가사사건 처리 기간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와의 2025년 직제 협의에서 가사조사관 45명 증원을 요청한 바 있다.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가사조사관 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은 약 1천600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400명 이상, 즉 3배 규모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박균택 의원은 “가정법원이 다루는 사건은 어느 한 가정의 아픔과 개인의 삶이 걸린 문제”라며 “조사관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당사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이재태 “벼 깨씨무늬병 정부 대책은 탁상행정”

“행정편의적 대응 농민만 피해”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 3)은 23일 정부의 벼 깨씨무늬병 부실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피해 농가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지난 14일 뒤늦게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했지만 피해 조사가 일주일 뒤인 21일부터 시작돼 이미 수확을 마친 농가들은 신고조차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피해 조사를 농민 스스로 신청하도록 한 정부 방침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일손이 부족한 수확철에 서류를 들고 면사무소와 농협, RPC를 오가는 것은 사실상 ‘포기하



라’는 말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깨씨무늬병 면적률 51% 이상, 피해 면적 30% 이상, 수확량 30% 이상 감소 등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현 제도는 현실을 외면한 기준”이라며 “상당수 농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직접 피해 조사 시행 ▲신고 기준 완화·피해 정도별 세분화 ▲사진 등 간소 증빙으로 피해 인정 절차 마련 ▲시기를 놓친 지역에 대한 포괄적 지원 및 긴급 생계비 지급 등 현장·농민 중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재정 기자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파크골프 모든 것!

실내연습장 완비

지도자 자격증 취득

- 모집기간 : 수시모집(1:1교육)
- 교육접수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접수방법
 - 농협 351-1286-9685-63(국제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2급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H.P. 010-9163-7897 Tel. 062-369-0070

파크골프교육 (초보,중급,고급)

- 실내실습장(파크골프 스크린장) 1:1 책임지도(매주 2회 이상)
-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 매주 토요일 09:00-11:30
- 매월 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



파크골프지도자 1·2급과정 교육 희망자 모집

교육과정			
2급 지도자과정	28만원 자격취득 총비용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	1:1지도 사전예약
1급 지도자과정	36만원 자격취득 총비용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	1:1지도 사전예약
초급완성반과정	12만원	실기실습장 이용권 15회	1:1지도/3회 사전예약
초급원포인트과정	6만원	실기실습장 이용권 6회	1:1지도/2회 사전예약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합격시까지 그 외 비용 일체 없음
* 접수 즉시 이론교재 및 예상문제지 배송 실기실습/실내실습장 합격시까지 무료교육

교육시간 평일(토) 오전 09시~ 오후 19시까지(일)/휴무

접수문의 T. 062-369-0070 M. 010-9163-7897

접수비 입금계좌 국민은행 772601-01-794141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